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진행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  
봄을 맞은 평양



조선

주체110  
(2021)

5

(778)



# 은꽃병

Silver Vase

꽃병은 나팔꽃모양의 아구리와 비교적 길고 굵은 목, 길둥근 몸체와 넓게 퍼진 안전한 밑굽으로 되어 있다.

꽃병의 몸체에는 여러가지 꽃무늬, 줄무늬, 기하무늬 등 로씨야의 전통적인 돌을무늬들이 섬세하면서도 조화롭게 새겨져있다.

높은 수공예술로 제작된 은꽃병은 몸체직경 11cm, 높이 28cm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 웨. 뿌쩰이 주체96 (2007) 년 2월 12일 드린 선물

## 차 례 CONTENTS

### 특별소식

- 2 ||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을 굳건히 다진 계기
- 1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 현지를 돌아보시였다
- 1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1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 경축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기념편집

- 22 || 조종수뇌분들의 중국 대련시에서의 역사적인 상봉 3툐에 즈음하여
- 30 ||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
- 44 ||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 오늘의 조선

- 50 || 봄을 맞은 평양
- 56 || 동심의 세계
- 64 || 희망과 꿈을 실현한 녀성박사
- 70 || 물우의 식당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 78 || 조선씨름의 전통은 오늘도

### 자연

- 82 || 문덕철새보호구
- 88 || 꿀벌이 늘어난다



2



30



44



50

편집: 신재철, 김정철, 김금성, 서철남,  
김규성, 유충일, 승 룡





# 전당강화, 전당단결의 초석을 굳건히 다진 계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전당의 모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데 대하여 강조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0(2021)년 4월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4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였다.

대회에는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모범적인 세포비서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부문에서 사업하는 당세포비서들, 중앙과 지방의 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회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기층조직을 강화하여 전당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당건설원칙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강조하시고 당세포비서들의 임무와 세포강화의 중요성 그리고 세포비서대회를 당대회에 못지 않게 중시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의도와 대회의 소집목적을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보강하고 우리 혁명대오를 불패의것으로 다지며 당대회결정관철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가 보고 《당세포의 전투력과 투쟁력을 더욱 높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을 무조건 결사집행하자》를 제기하였다.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당세포비서의 본분과 기본임무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에 힘을 넣고 당의 초급정치일군으로서의 품모와 사업방법을 체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핵심, 초급정치일군이라는 값높은 영예를 인생의 전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갈 결의들이 표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결론 《현시기 당세포강화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강령적인 결론에서 먼저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피줄처럼 뻗어있는 수많은 당세포들이 당중앙과 맥박을 같이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충직하게 받들어왔기에 우리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시원인 건설동지사를 모체로 장성강화된 우리 당세포는 오늘 수십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당의 세포들이 하나같이 충실히 여물고 강쇠처럼 굳세면 어떤 도전과 시련이 중첩된다고 하여도 혁명투쟁에서 극복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확인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기충당조직을 강화하는 사업이 심화되고있는 오늘에 와서도 적지 않은 당세포들에 내재되어있는 주요한 결점들에 대하여 통보하시고 지난 기간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은 적극 살리고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은 대담하게 고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와 당원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당세포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점에서의 당중앙의 분석과 전략적의도는 전당의 수십만 세포들이 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자기가 맡은 혁명진지를 굳건히 고수하고 혁명화, 공산주의화하는 투쟁목표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는것이라고 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것, 이것이 현시기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제일 중요한 임무이라고 천명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의 세포들을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들기 위하여 현시기 당세포들앞에 나서는 10가지 중요과업과 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첫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라고 밝혀주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충성의 길, 혁명의 길을 곧바로 걸어가도록 그들의 머리속에 당의 사상을 쉬임없이 넣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둘째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5대교양을 기본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명약은 혁명전통교양과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체제급교양, 도덕교양이라고, 이 5대교양은 우리 혁명실천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것으로서 항구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당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셋째로, 당규약학습을 강화하고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면서 당규약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며 생활하는것은 당원의 본분을 다하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고 강조

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넷째로,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의 단합은 당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과 함께 매 당원들의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당생활과정을 통하여 공고화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다섯째로, 세포사업을 당대회와 당중앙의 중요결정관철에로 확고히 지향시키는것이라고 밝혀주시면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 전력과 석탄, 기계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건설건설부문, 농업부문, 경공업과 수산부문, 국가경제지도기관,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의 당세포들에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여섯째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세포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으로 무장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당세포비서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0(2021)년 4월

웁게 가지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일곱째로, 입당 대상자들을 장악하고 교양하며 단련시키는데 품을 들이는것이라고 밝혀주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당세포들이 입당대상자장악과 추천에서 당적원칙,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보장할수 있게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여덟째로, 청년교양에 특별한 힘을 넣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들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청년동맹초급 조직들에만 맡겨놓는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이 사업을 당원대중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아홉째로, 인간 개조사업을 적극 벌리며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는 인간개조운동이 힘있게 벌어 지던 천리마시대처럼 뒤떨어진 사람들을 사회주의적 근로자, 애국적인 근로자로 만드는 사업을 전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과업은 열째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리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세포사업의 성과여부는 세포 비서들의 준비정도와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세포비서들은 당원들과 대중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잡음없는 증폭기, 당의 모습을 그대로 비쳐주는 깨끗한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당의 요구이고 시대의 요구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성, 원칙성, 정치성, 책임성, 이신작칙, 창발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락천성, 도덕성, 청렴결백성은 당세포비서들이 지녀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세포비서들이 이와 같은 품성들을 갖추고 조직과 집단을 위해 헌신할 때 군중으로부터 《우리 세포비서》로 친근하게 불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적으로 세포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세포비서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과 당세포비서들의 공지와 영예감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세포비서들에 대한 당중앙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비상한 각오와 결심, 투지를 안고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세포로 만드는데 전심 전력함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 굳게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전인민적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 표창장이 모범적인 당세포비서들에게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당세포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당세포비서들에게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 비서대회 폐회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당의 사상의 지적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이 다시금 확증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기층 조직건설사상을 발전풍부화하고 전당의 세포비서들에게 명확한 행동지침을 새겨준 의의깊은 대회로 주체의 당건설사에 뚜렷이 기록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인민의 믿음에 기여이 보답할 확고한 결심을 피력하시고 조선로동당의 무한한 힘이고 불패성의 상징이며 특유의 칭호이고 명함인 어머니당이라는 위대한 부름앞에 땀땀하고 이 영광스러운 영예를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함에 모든 당일군들, 당세포비서들이 백배로 분발하여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이번 대회의 기본사상과 과업들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세포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함으로써 전당 강화, 전당단결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폐회를 선언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는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보강하고 혁명대오를 불패의것으로 다짐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당대회결정관철과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 현지를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또다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 공사장 현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본격적인 건설에 진입하기 위해 현장을 차지하고있는 시공단위들의 전개모습을 돌아보시며 시공분담구역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800세대 다락식주택구 건설은 새로운 형식의 주택들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발전된 생활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주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비껴있는 대상건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모든 건설단위들에서는 대상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앞으로 수도건설과 지방 건설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민족성과 현대성의 정확한 배합에 기초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도시경영 및 환경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원림록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내에 주택 및 도시경영과 생태환경부문에 더 많은 진전을 이룩하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물질 문화적복리를 제공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경축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4월 15일 태양절경축 중요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를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동지, 조용원동지, 리병철동지, 김덕훈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부서 간부들, 직원들, 가족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국무위원회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요예술단체들의 예술인들은 반만년민족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차준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준 조선로동당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추억깊은 송가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력사의 모진 격난속에서도 위대한 사상의 힘, 단결의 억센 힘으로 인민을 이끌어 이 땅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펼치고 불패의 강대국을 탄생시킨 당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영광스러운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준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





# 조종수뇌분들의 중국 대련시에서의 역사적인 상봉 3돐에 즈음하여

주체107(2018)년 5월 7일-8일



조종 두 나라 령도자들의 중국 대련시에서의 역사적인 상봉 3돐이 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7(2018)년 3월의 첫 중국방문에 이어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의 료녕성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화창한 봄계절에 중국을 또다시 방문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습근평총서기는 열렬히 환영하고 극진히 환대하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사이에 진행된 회담에서는 자기 나라의 정치경제형편들이 호상 통보되고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추동할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의 해결방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멀리 대련에까지 와서 따뜻이 맞아주고 온갖 성의와 지성을 다하여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세심히 조직하여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조종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승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김정은동지께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의사를 소통하고 조를하기 위해 친히 중국에 오신데 대해 다시한번 사의를 표하고 중조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라고 하면서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려는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며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사이의 깊은 우정과 신뢰심은 김정은동지를 환영하여 습근평동지가 마련한 성대한 연회장에서도 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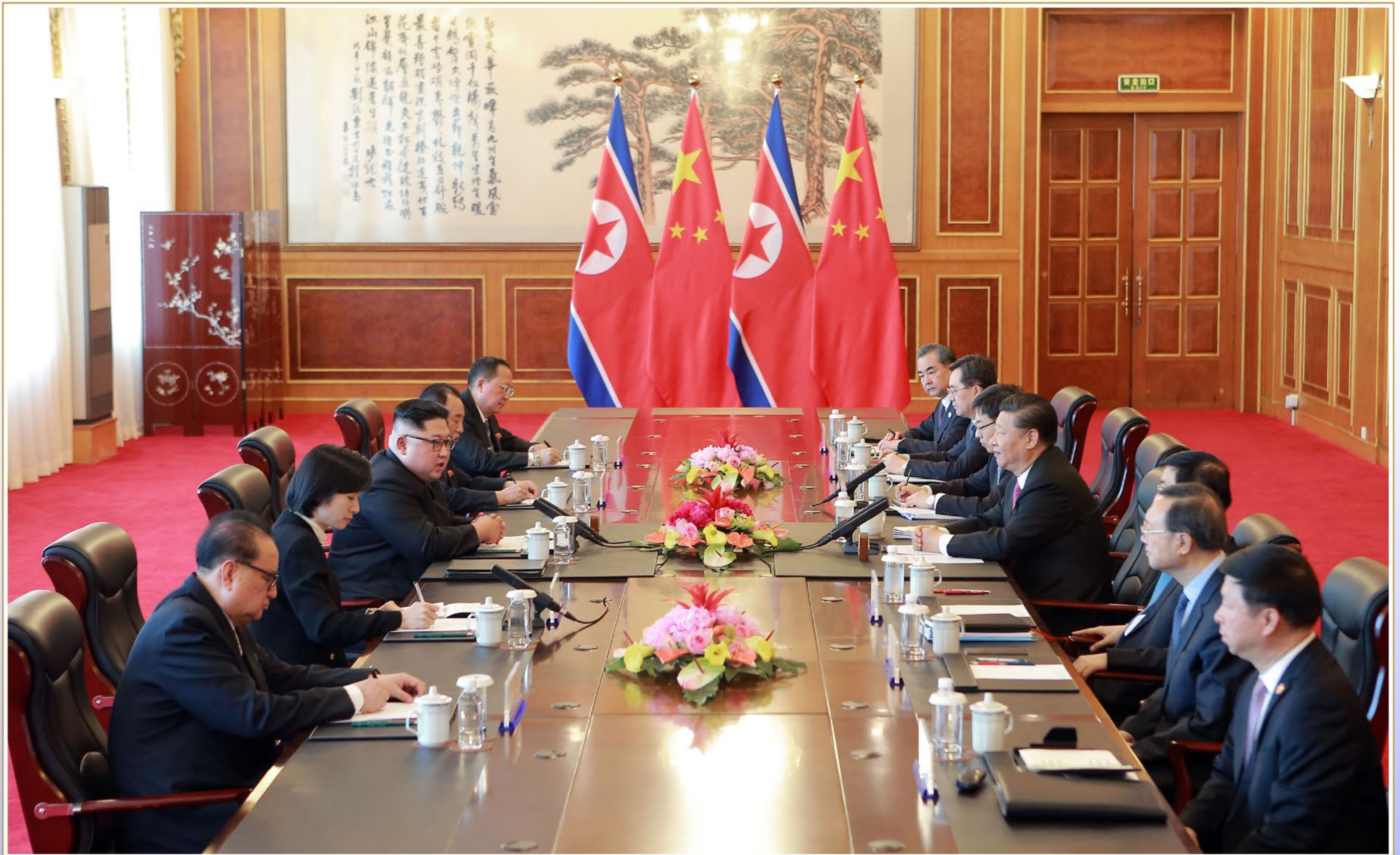
습근평동지는 축하연설에서 생기가 발랄하고 약동하는 기상이 나래치는 아름다운 시절에 또다시 중국에 오신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중조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상봉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5월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주체107(2018)년 5월





관계의 새롭고 보다 큰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국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적극 기여할 의지를 피력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답례연설에서 중국당중앙의 따뜻하고 친절환대와 극진한 관심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고 앞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적 장정에서 친근한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가갈 굳은

립장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8일 오전 또다시 습근평동지를 만나시고 해변가를 거니시며 흥금을 터놓고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으며 이어 습근평동지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어 동지적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중국방문은 국제사회에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으로 강화발전시키려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의 확고한 지향과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

주체1 (1912) 년 4월 1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조선에서는 이날을 태양절로 정하고 해마다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





각계층 근로자들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드리고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온 나라는 성대한 경축분위기로 들끓었다.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전국의 수많은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9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와 전국 소묘, 서예축전이 진행되였다.

수도와 각 지방들에서는 다채로운 경축공연들과 군중예술공연들이 진행되였다.

태양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4월 15일 저녁 평양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진행되였다.

명절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하며 김일성광장에는 환희의 춤물결이 설레이고 수도의 하늘에는 축포의 불보라, 꽃보라가 펼쳐졌다.

사진 리명국, 안철룡, 홍광남, 리철진  
리진혁, 공유일, 방은심  
글 리진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9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가 진행되였다.



태양절경축 전국소묘, 서예축전이 진행되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동평양대극장을 비롯한 극장들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 태양절경축 국립교예단의 종합교예공연중에서



## 태양절경축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1》



태양절경축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1》이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명축전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펼쳐가는 사회주의조국의 자랑찬 모습과 창조와 건설로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어가는 조선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삶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 김일성광장에 펼쳐진 청년학생들의 경축의 춤바다





## 태양절을 경축하는 평양의 밤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해마다 5.1절을 맞으며  
다채로운 체육문화행사들이 진행된다.





# 무진장한 자원-고품질 마그네사이트

## 매 장 량

룡양광산 40억t  
대흥청년영웅광산 22억t  
백바위광산 1억t





# 봄을 맞은 평양







평양의 어디에나 봄의 자태가 완연하다.  
만경대와 모란봉, 대성산의 수림과 거리의 가로수들마다 청신한 연록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수도의 곳곳에 울긋불긋한 꽃의 바다가 펼쳐졌다.

대동강반과 룡라도의 수양버들은 가벼운 봄바람에 가지를 흐느적이며 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듯싶다.

거리와 유원지들의 꽃관목들도 가지마다 움을 띄우고 꽃망울들을 한껏 터치였다.

꽃계절과 더불어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광복거리 등 수도의 거리들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건축물들에도 봄의 정서가 함뱍 어리였다.

봄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에도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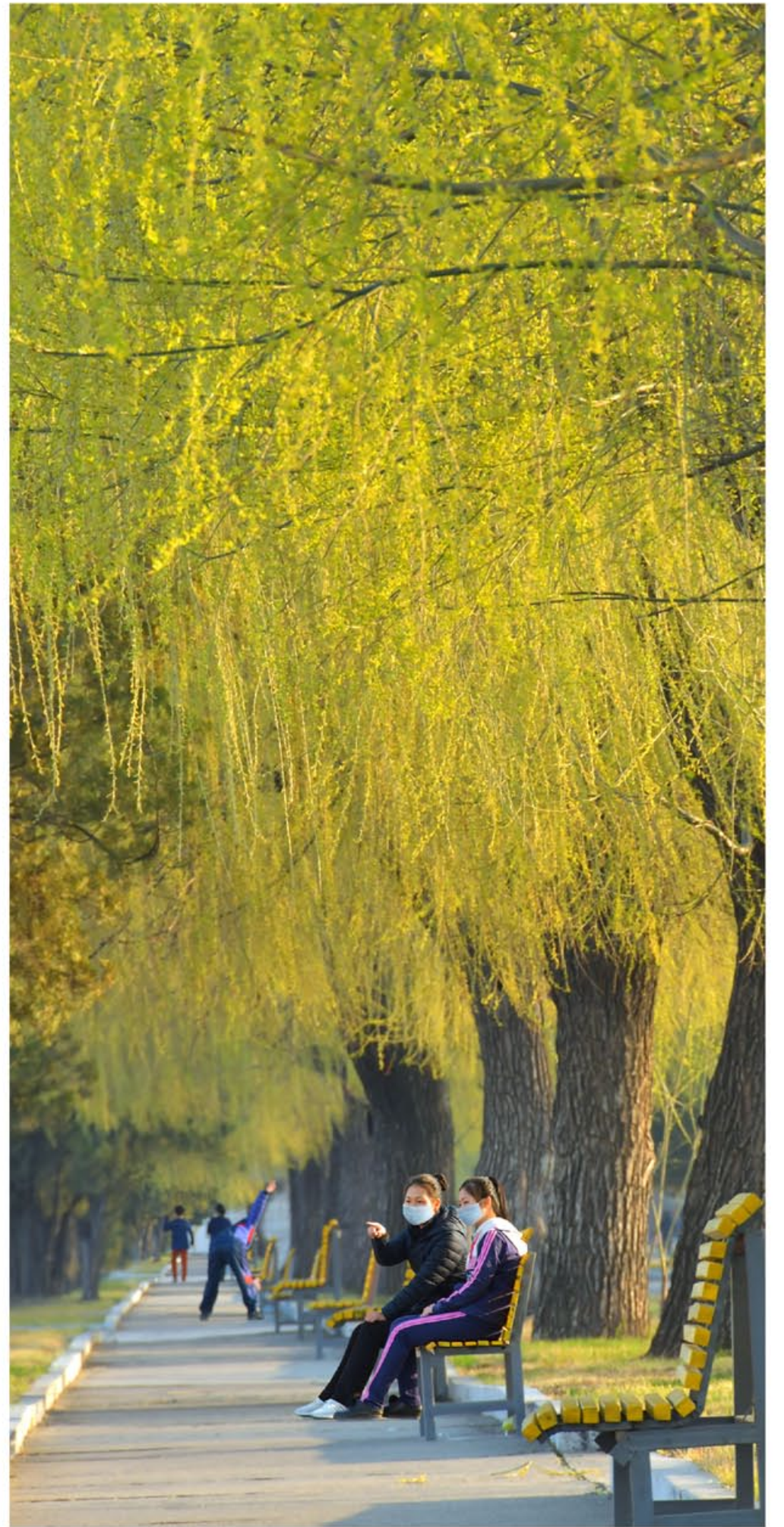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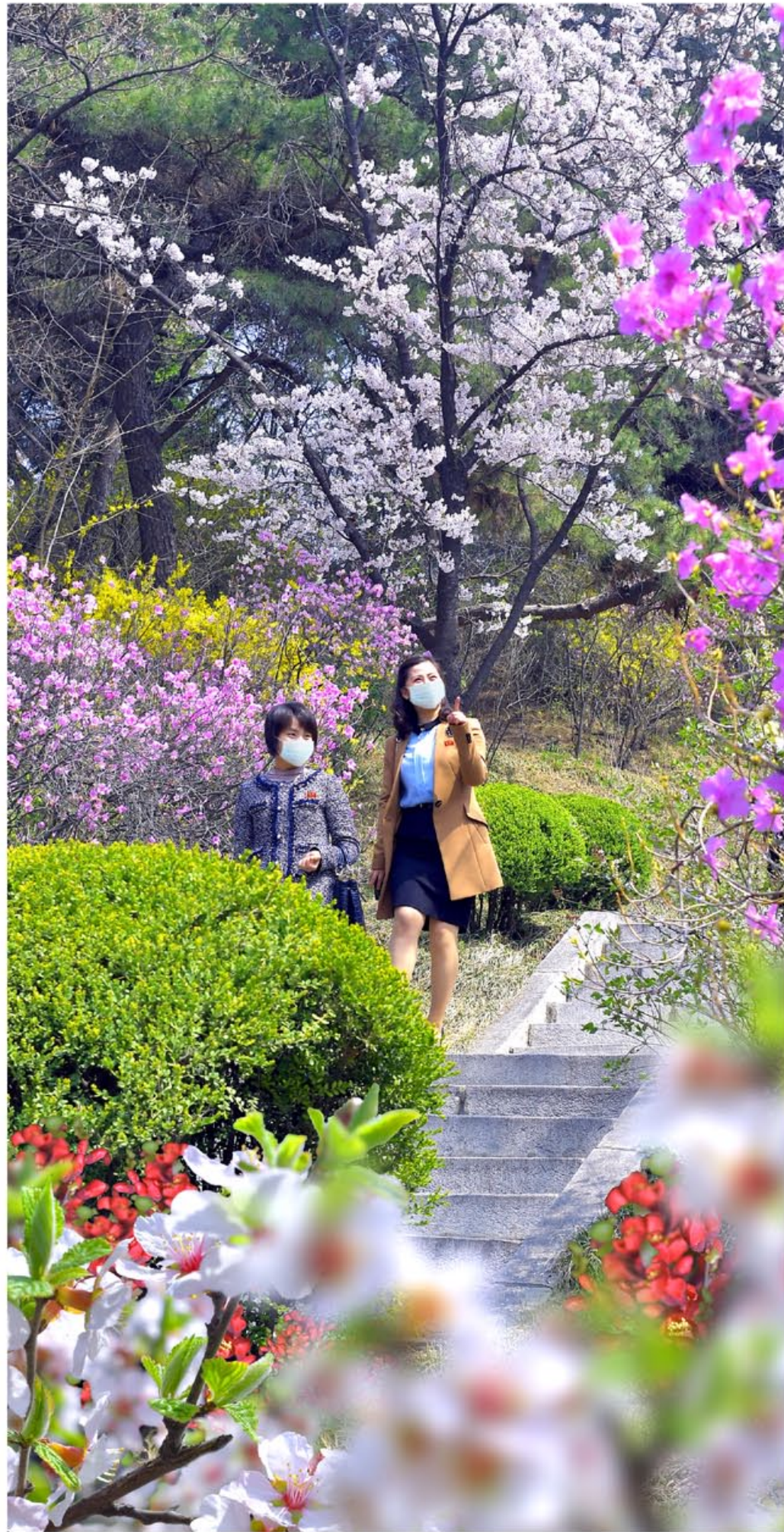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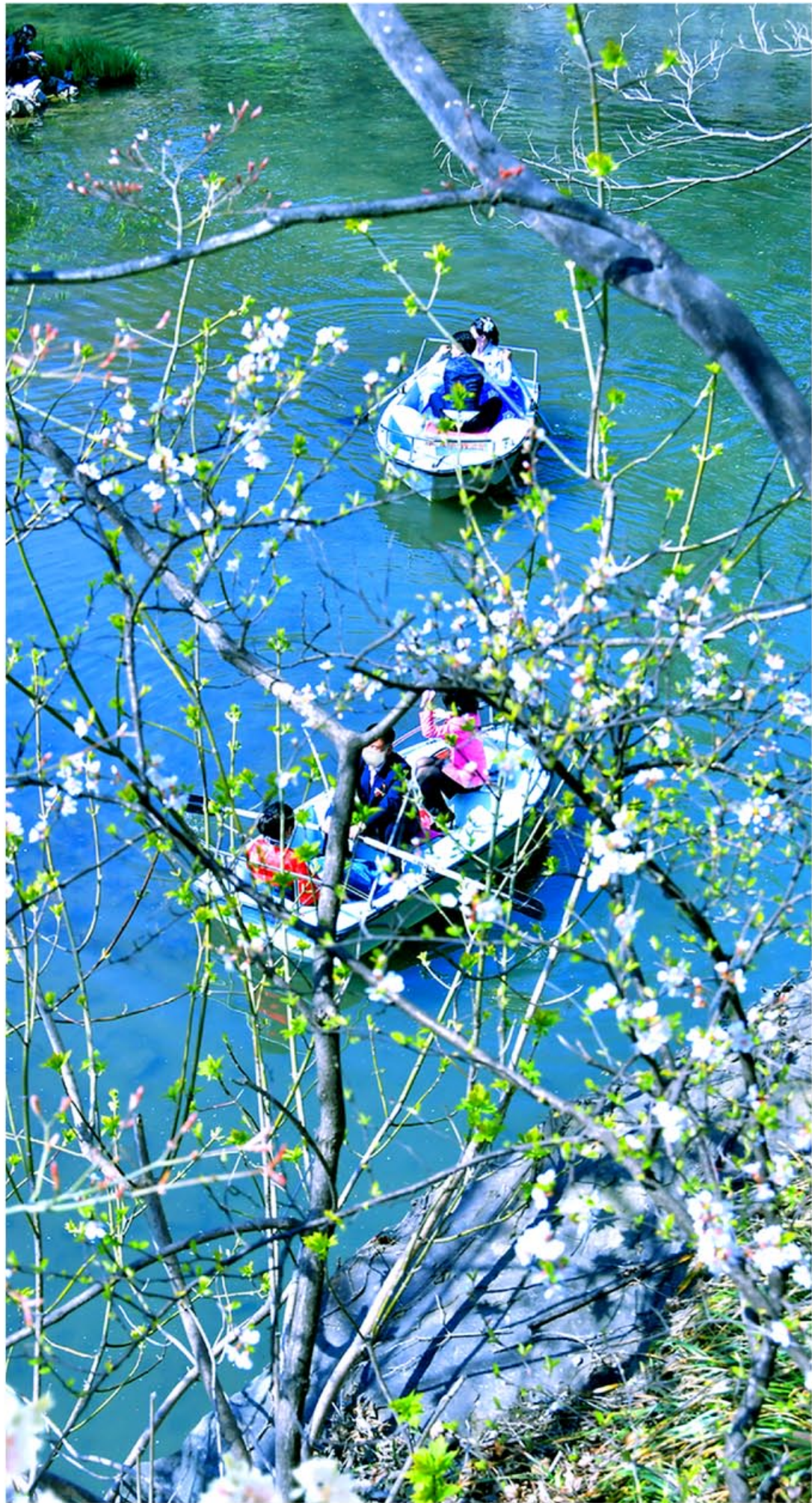
어디서나 희열과 랑만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높이 울려 퍼진다.

자기 삶의 터전에 대한 긍지를 간직하고 그를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가꾸어가려는 사람들의 자각을 북돋아주는 평양의 봄이다.

사진 최원철, 공유일, 김성철, 임정국  
글 최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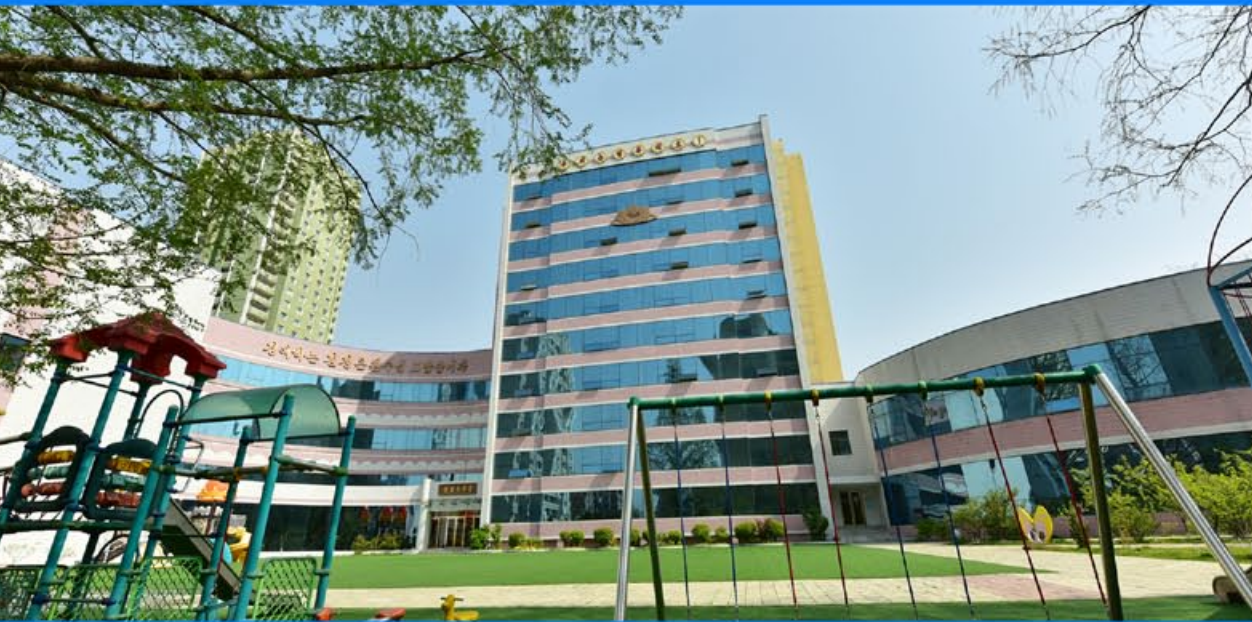






# 동심의 세계

-창광유치원을 찾아서-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창광유치원에서도 전국각지의 유치원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노래소리,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나오고있다.

주체71(1982)년에 설립된 유치원은 우수한 보육교양 단위로, 재간둥이들을 많이 키워내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는 이곳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이다.

유치원에서는 달마다 아이들의 건강지표들을 측정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고있다. 특히 모든 아이들이 몸단련을 위한 운동을 즐겨하고 활발하게 생활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우리 말과 글, 춤과 노래를 배우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재간들도 익혀가고있다.

교양원들은 매 아이들의 체질과 성격, 취미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에 토대하여 피아노, 기타를 비롯한 악기들과 성악, 미술, 외국어, 바둑 등을 배우도록 하고있다.

천성적인 재능의 싹도 어떻게 보살피는가에 따라 그 결실이 좌우된다는것을 항상 자각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곳의 교육자들이다.

유치원에서 제작한 지능계발다매체편집물 《꽃봉오리》는 어린이들이 흥미진진한 유희과정을 통하여 지능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만들어진것으로 하여 부모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전국의 유치원들에 널리 일반화되었다.

창광유치원의 어린이들은 최근년간까지 진행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련속 특등과 1등을 하였다.

사진 안철룡, 김성철, 방은심 글 리진범















주요이온함량

Ca <sup>2+</sup>	...	112mg
Mg <sup>2+</sup>	...	54mg
Na <sup>+</sup>	...	1.38mg
SO <sub>4</sub> <sup>2-</sup>	...	10.5mg
SiO <sub>2</sub> <sup>2-</sup>	...	10.5mg
HCO <sub>3</sub> <sup>-</sup>	...	563.5mg
K <sup>+</sup>	...	0.12mg
Cl <sup>-</sup>	...	10.5mg

조선의 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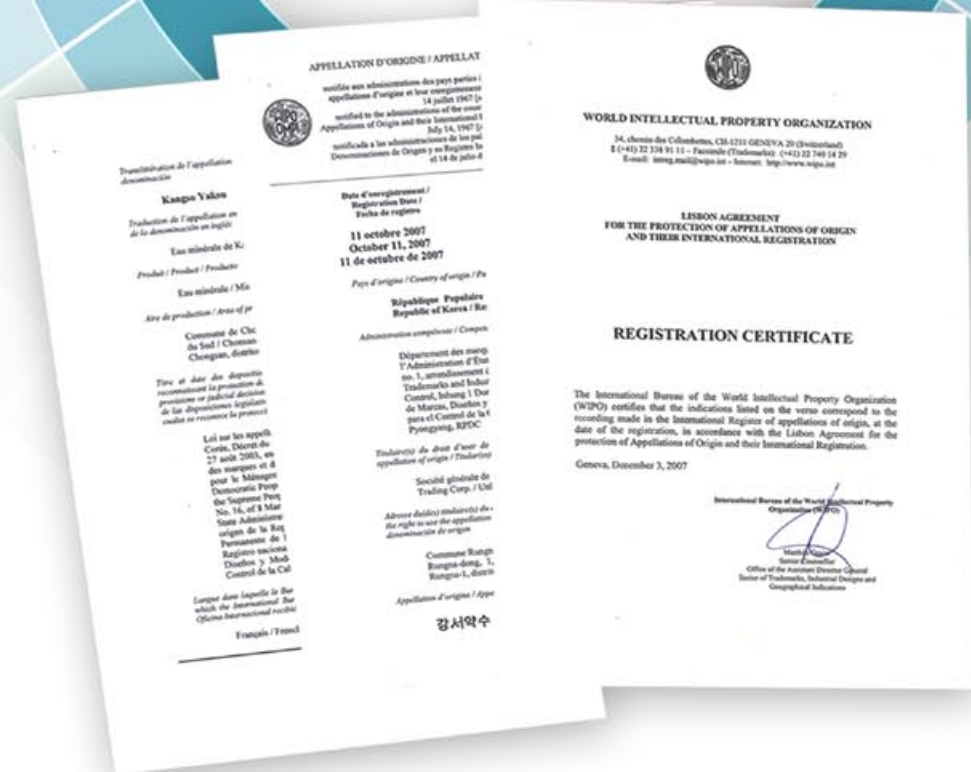


Kangso Mineral Water

국가지정천연기념물 제56호

평양의 서남부에 위치한 남포시 강서구역에는 조선의 약수를 대표하는 광천수의 하나인 강서약수가 있다.  
언제 생겨난지는 알수 없으나 오늘도 쉬임없이 분출되어나오는 이 광천수는 그 량도 많거니와 사람들의 건강에 적극 기여하는것으로 하여 수백년 전부터 유명했다.  
이 약수는 인체내에서 영양물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며 물질대사과정에 산생되는 로폐물과 독성물질 등의 배출작용도 비할바없이 높다.  
강서약수는 리상적인 음료수일뿐아니라 간기능

장애, 비만증과 당뇨병, 소화기질병 등의 치료와 예방에도 매우 좋다.  
건강한 사람들도 이 약수를 정상적으로 마시면 인체의 기능을 현저히 높여 장수할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지금 이곳에는 유리병약수생산공정과 통약수 생산공정 그리고 수지병약수생산공정이 갖추어진 공장이 세워져있다.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고 자동화, 흐름선화가 실현되어있는 공장의 생산공정들은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있다.







# 희망과 꿈을 실현한 여성박사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사는 김정순은 교육자들속에 속독교육의 개척자로 널리 알려져있다.

주체52(1963)년 평안남도 덕천군(당시)에서 태어났으며 2살때 부모들을 따라 평양으로 이사했다.

어릴적부터 독서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는 그는 중학시기에는 동무들로부터 《도서관책임자》로 불리웠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당시)에 재학하면서 유전자 공학을 배우던 시기에도 전공분야는 물론 다른 분야의 서적들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탐독하는 그를 보고 동료들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불렀다.

대학을 졸업한 주체76(1987)년부터 그는 조선의 이름난 교육단위인 평양제1중학교의 연구사가 되었다.

초기부터 새로운 교육방법들을 내놓아 교원들과 학부형들의 찬사를 모았던 그는 점차 학생들이 지식을 더 빨리 그리고 정확히 소유할수 있게 하는 교육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그는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습득하게 할뿐아니라 두뇌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고도의

집중력, 비상한 기억력, 빠른 암산력과 함께 높은 관찰력, 창조적사고력을 갖추수 있게 하는 속독에 주의를 돌렸다.

그리고 이 교육방법을 개발, 도입할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우선 3년동안 속독교육의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데 토대하여 그것을 실험해보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였다.

그의 연구영역은 더욱 확대되였다.

완강한 탐구력으로 기억술과 암산술 등을 개발하면서 그는 중학생들의 연령 및 심리적특성에 맞게 체계화한 속독교육방법을 완성하였다.

그의 연구성과는 학교의 범위를 넘어 국가적인 관심을 모았다.

하여 해마다 전국적인 속독강습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 강습을 지도하는 과정에 수많은 단위의 교원들이 김정순의 훌륭한 제자들로 자라났다.

뿐만아니라 그는 세계적인 지력경기들의 항목과 평가





김정순은 전국적인 부문별 속독경연심사를 맡아 수행하였다.



기준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에 상응한 경기의 조직과 준비에 관한 문제들도 제기하였다.

그가 집필한 교재들인 《속독법》(2010년), 《속독》(2013년)과 도서들인 《두뇌개발속독》

(2014년), 《대뇌의 별》(2020년), 《속독배우기》(2021년) 등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그는 주체102(2013)년에 논문 《속독교육연구》를 발표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정순이 공지로 간직하고있는것은 대뇌사유지도에 대한 10여년간의 연구와 교육실험을 거쳐 도서 《대뇌의 보물 사유지도》를 완성한것이다.

2018년과 2019년에 조선의 대학생들은 제27차,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련이어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김정순의 제자들이 키워낸 학생들이다.

특히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 참가한 6명의 조선선수들은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28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들에 의해 4건의 세계신기록이 세워졌으며 전원이 대회의 최고상인 국제기억대가상을 수여받았다.

7개의 금메달을 쟁취한 평양외국어대학의 한 학생은 세계최우수기억력선수권보유자로 되었다.

세계적인 지력강자들이 나올 때면 사람들은 개척자로서의 그의 수고에 대하여 말하곤 한다.

그때마다 김정순은 《후생가외》라면서 제자들의 재능과 노력을 더 높이 쳐준다.

이제는 년로보장을 받고 교정을 떠난 김정순이다.

하지만 그가 키워낸 수많은 제자들은 교육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바친 그의 노력을 결코 잊지 않고있다.

사진 손희연 글 김선경



제27차,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조선의 대학생들



제27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7개의 금메달과 4개의 컵 쟁취,  
2명에게 국제기억대가상이 수여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18건의 세계기록 돌파, 4건의 세계신기록 수립,  
력사상 최고의 성적을 쟁취하고 나라별종합순위 1위 쟁취,  
6명전원에게 국제기억대가상이 수여







# 물우의 식당

##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평양의 중심부 주체사상탑이 마주 보이는 대동강반에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사람들의 눈길을 먼저 끌어당긴다.

길이 120m, 너비 25m이며 배수량이 3 500t인 《무지개》호가 대동강에 자리를 잡은것은 주체104(2015)년이다. 4층으로 된 종합봉사선의 봉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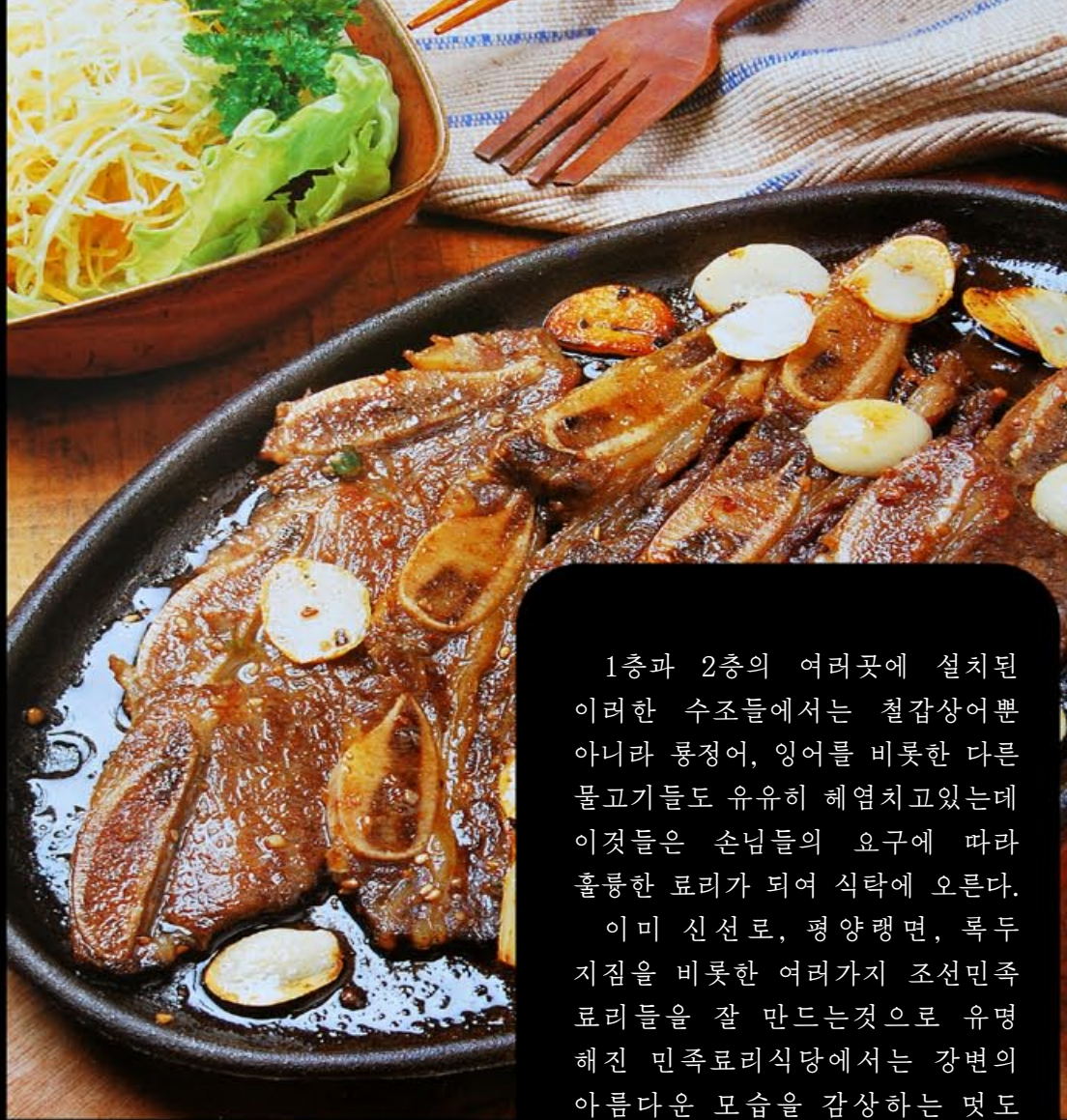
들은 한번에 1 200여명의 손님들을 받을수 있다.

민족료리식당과 청량음료실, 커피 봉사실, 상점 등과 통하는 1층홀은 마치 물우의 호텔을 연상시킨다.

화려하고 우아한 홀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먼저 가닿는 곳은 철갑상어들이 있는 수조이다.







1층과 2층의 여러곳에 설치된 이러한 수조들에서는 철갑상어뿐 아니라 룡정어, 잉어를 비롯한 다른 물고기들도 유유히 헤엄치고있는데 이것들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훌륭한 요리가 되어 식탁에 오른다.

이미 신선로, 평양랭면, 룡두지짐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선민족 요리들을 잘 만드는것으로 유명해진 민족로리식당에서는 강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멋도 이채롭다.

상점에서는 청량음료, 당과류들과 도자기와 개성고려인삼제품, 수정제품 등도 판매하고있다.

봉사선을 찾는 손님들은 이곳에서 《무지개》호의 마크가 새겨진 기념품들을 사는것도 잊지 않는다.

2층으로 올라가면 연회장과 벨트부페트식당 그리고 동석식사실들이 있다.

백수십개의 좌석이 갖추어진 연회장은 생일연회나 새 가정을 이루는 청춘남녀들의 결혼식장으로 리용되고있다.

여러가지 세계로리들을 봉사하는 벨트부페트식당은 저녁이면 손님들로 만원을 이룬다.

아늑한 느낌을 주는 동석식사실들에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종합봉사전에서 손님들에게 봉사하는 요리들은 수백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3층과 4층의 야외갑판식당과 회전전망식당도 손님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이곳들을 찾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것은 대동강맥주이다.

힘차게 솟구치는 대동강의 분수와 옥류교너머 룡라도의 5월1일 경기장, 강아래쪽 양각도의 모습 등을 부감하며 《무지개》호에서 보내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통하여 손님들마다 깊은 인상을 받아안고있다.

사진 안철룡, 방은심 글 리진범





# 신선로

신선로는 고기, 물고기, 납새, 산나물, 과일 등을 따로따로 가공하여 볶음, 전, 회, 완자 등을 만들고 독특한 구조의 솥그릇에 담아서 내는 요리이다.

이 요리는 본래 열구자, 구자탕 등으로 불리웠다. 열구자란 입을 기쁘게 하여준다는 의미이고 구자탕은 열구자와 같은 뜻이다.

료리맛이 좋다니 그릇이름이 점차 료리이름으로 바뀌어졌다.

신선로의 유래에 대하여 역사책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조선 봉건 왕조의 10대 왕인 연산군의 통치시기인 15세기말-16세기초에 한 고명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왕의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을데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가 무시당하자 깊은 산속에 은거하였다.

그에게는 기묘하게 생긴 화로가 있었는데 산짐승을 잡거나 산나물을 채취하여서는 거기에 넣고 탕을 만들어 식사를 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 화로를 신선의 풍이 있는 로인이 쓰던 화로라는 뜻에서 신선로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신선로에는 수십가지의 음식감이 이용된다.

그중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해삼, 새우와 같은 해산물이다.

오늘 평양의 옥류관과 청류관 등에서는 조선의 산해진미가 담겨진 신선로의 풍미를 한껏 느낄수 있다.



조선민족료리의  
걸작품인 신선로는  
그 맛이 하도 좋아

입을 기쁘게 하는 탕이라는 의미에서  
**열구자탕**이라고도 부릅니다.





# 조선씨름의 전통은 오늘도

조선에서 씨름은 오랜 역사를 가지 고있다.

조선씨름은 고대국가였던 고조선 (B.C. 30세기초-B.C. 108년)시기 부터 진행되어왔으며 고구려(B.C. 277년-A.D. 668년)때에 그 내용과 방식이 더 완성되고 풍부화되었다.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있는 고구려의 씨름무덤(4세기 말엽)과 장천 1호무덤(5세기 중엽)의 벽화에 두명의

힘장사가 서로 상대방의 살바를 틀어잡고 힘을 겨루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것을 통해 알수 있다.

고려시기(918년-1392년)와 조선 봉건왕조시기(1392년-1910년)에 이르러 씨름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8세기 유명한 화가였던 김홍도가 그린 씨름그림이 전해지고있다.

씨름에는조선민족의 생활과 감정,

정서가 반영되어있다.

씨름은 모내기나 김매기, 가을걷이를 계기로 많이 진행하군 하였다.

특히 민속명절 추석(한가위) 때는 경치좋은 곳마다에 꾸려진 씨름터에 모여와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승부를 겨루었다.

씨름경기우승자에게는 황소를 상으로 주었다.

그 전통은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고구려 (B. C. 277년-A. D. 668년) 시기의 유적인 씨름무덤 안칸 오른쪽벽화에는 두 힘장사가 씨름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있다.

18세기 화가 김홍도의 그림 《씨름》



해마다 경치 좋은 룡라도의 씨름 경기장에서 대황소상전국민족씨름 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그대로 살리면서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되었다.  
뿐만아니라 크고작은 체육경기 대회들에는 씨름이 중요한 경기종목으로 포함되고있다.  
이 과정에 씨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전국각지에서 씨름

선수들과 씨름애호가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2018년 조선씨름을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글 림옥





# 문 덕 철새보호구



새들의 리상적인  
중계지, 서식지

평안남도 문덕군의 조선서해 연안에 면적이 3 700여정보에 달하는 문덕철새보호구가 위치하고있다.

청천강과 대령강물의 운반퇴적 작용에 의해 생겨난 이 일대의 삼각주나 바다가의 간석지들에는 갈밭과 논밭, 늪 등 철새들의 서식활동에 필수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원만하게 갖추어져있다.

이 일대의 식물종수는 100여종에 달하며 그가운데서 갈, 통통마디, 나문재, 칠면초자연군락을 비롯한 식물군락의 개수만도 근 20개에 달한다.

그리고 40여종의 환형동물과 연체동물, 갑각류들과 60여종의 물고기류가 이곳에 분포되어있다.

하여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이곳



으로 수많은 철새류들이 무리지어 날아든다.

봄철에 이행하는 많은 철새들이 이곳에 머물러있기도 한다.

겨울나이스기와 이행시기에 이곳의 논밭과 간석지들에서 관찰되는 새들은 대체로 오리-기러기류, 두루미류, 도요류인데 대부분의 오리-

기러기류들은 겨울 전기간 보호구 일대를 이동하면서 먹이활동을 진행한다.

보호구일대를 지나는 철새류중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것으로 하여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는 대상만도 20여종이나 된다.

이곳에서 관찰된 조류들중에서





청 조



노랑부리백로



물개리



류리딱새



조롱이



흰눈선희황금새



알락꼬리마도요



중백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공동연구







전지구적인 위협종새들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갯두루미, 물개리와 쇠기러기, 갯도요 등의 마리수는 전 지구적 또는 지역적마리수의 1% 이상이다.

특히 물개리는 전지구적인 마리수의 50%이상에 달한다.

지난해 6월에는 이곳에서 꽃진경이의 번식활동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조류전문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보호구일대에서 지난해까지 관찰된 조류의 종수는 286종에 달한다.

그가운데서 사철새가 50여종, 여름새가 80여종, 겨울새는 40여종, 통과새는 90여종이다.

한해동안에 관찰된 조류의 최대 마리수는 13만마리이상이다.

생태환경보호를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국가의 조치에 따라 여러 지역들과 함께 이곳이 철새보호구로 지정된것은 주체84(1995)년이다.

그때부터 이 일대의 자연환경은 보다 더 잘 보존되게 되었다.

이곳에 조직된 보호구관리소에서는 주변환경의 보존에 지속적인 관심을 돌리는것과 함께 자연재해로 파괴된 지역들에 대한 복구사업에도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여러가지 무척추동물들의 보호증식과 수산자원증식활동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서 조류들에게 풍부한 먹이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이곳에서는 철새관찰을 위한 시설물들을 곳곳에 꾸려놓고 꾸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있는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자주 볼수 있다.

글 최광호







5. 20.  
세계꿀벌의 날  
World Bee Day



# 꿀벌이 날아난다



꿀벌이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의 꽃가루받이를 도와주면서 지구의 생태환경보호와 인류의 생존에 커다란 《업적》을 쌓았다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꿀벌은 또한 자기의 산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것으로 하여 《인류건강의 벗》, 《날아다니는 약제사》로 불리우고있다.

그래서 인류는 꿀벌을 애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장구한 세월 끊임없이 진행하여오고있다.

조선민족의 꿀벌치기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력사책에는 643년에 조선사람이 일본에 꿀벌을 가지고가서 꿀벌치는 기술을 가르쳐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조선에서 그 이전시기부터 이미 양봉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어 대륙성 및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다 받으며 산지가 많은 조선은 산과 골짜기, 해안지형이 발달하여 식물상도 매우 풍부하고 한 식물이라 하여도 꽃피는 시기가 지역과 골마다 달라 양봉활동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있다.

조선이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해방(1945. 8. 15.)된 후 양봉은 인민들의 건강보호를 언제나 첫 자리에 놓는 국가의 관심사로 전환되었다.

양봉사업소들이 도, 시, 군들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조직되고 그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와 물질적 방조가 끊임없이 강화되었다.

가정들에서도 꿀벌치기가 적극 장려되었다.

1960년대에 전국적인 밀원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조선에 분포되어있는 밀원식물이 근 300종이나 된다는것이 밝혀졌다.

이 식물들을 항상 보존관리하는것과 함께 매 지방의 특성에 맞는 밀원지들을 더 많이 조성하여 꿀벌들의 발육과 번식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기 위한 사업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식수 및 산림조성사업의 중요항목의 하나로 되었다.

그와 함께 꿀벌의 보호증식을 과학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진행되어오고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는 50여년의 연혁을 가지고 있는 농업연구원 꿀벌연구소가 자리잡고있다.

연구소에는 육종연구실, 사양연구실, 질병연구실, 정보연구실이 있다.

초창기에 벌써 조선에 있는 꿀벌품종들의 순종 체계를 확립한 연구소에서는 꿀벌의 번식방법과 사육방법의 개선과 관련한 연구활동들을 활발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나라의 기후와 밀원식물조건에 맞는 꿀벌 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해마다 많은 왕벌들을 생산하여 전국의 양봉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전국도처에서 꿀벌치기가 활기있게 벌어지는 속에 주체56(1967)년에는 조선양봉가협회가 조직되었다.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협회에서는 양봉부문의 최신 과학기술을 널리 해설, 보급하고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활발히 교환하여 모든 일군들의 자질과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조직진행하고있다.





오늘 협회에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양봉애호가들이 망라되어있다.

그들모두는 해마다 꿀철이 시작되는 날자와 각종 밀원식물조건에 따라 강한 벌떼키우기와 벌개짓기, 이동사양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착실하게 준비를 갖춘다.

그리고 각종 밀원식물들의 꽃피기가 진행되는 봄부터 가을까지 꿀벌들과 함께 밀원지들에 대한 《여행》을 진행한다.

최근 경공업과 제약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꿀과 왕벌젖뿐아니라 벌꽃가루, 밀랍, 벌독 등 꿀벌

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있다.

꿀벌산물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는 속에 조선에서는 전국양봉부문 기술강습 및 품평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여기에서는 각 도에서 출품된 꿀벌산물들에 대한 품평회와 함께 꿀벌치기와 관련한 기술강습 등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사진 최원철, 전선일 글 김선경



# 금강산의 꿀







# 새형의 려객버스

《평양-191》형 2층버스

《평양-192》형 교통버스





# 5월1일경기장

May Day Stadium

주체78 (1989) 년에 준공  
경기장 부지면적 40여만 $m^2$   
연 건축면적 20만 7천여 $m^2$   
관람석수 150 000석



낸곳: © 조선화보사 2021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mailto:flph@star-co.net.kp)

